



“차세대 제주관악 밑거름 다지는 일 남은 바람”

제주 문화계 이 사람 (30) 이상철 국제관악제 집행위원장

광복 50주년 되는 해 탄생
국제관악제 사반세기 눈앞

“대중성·전문성 균형 강점
청소년 관악 아카데미 등
관악제 성과 이어가도록”

그를 만나던 날, 제주시 도심을 행진하는 관악대 사진이 눈에 들어왔다. 제주국제관악제조직위원회 사무실 한켠에 놓인 흑백사진으로 고봉식(작고) 제주국제관악제 초대 조직위원장이 1950년대 초 오현고 밴드부를 이끌던 모습이였다. 고인의 뜻을 이어 그 역시 지금 제주관악사의 한 페이지를 쓰고 있다. 이상철 제주국제관악제 집행위원장이자이다.

1995년 제주국제관악제가 막을 올렸지만 그 시작은 1992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해 8월 문예회관을 주무대로 한국관악협회제주도지부가 대한민국관악제를 성공적으로 치렀고 당시 한국관악협회장이 제주 관악인들을 격려하며 제주고교연합관

악단을 1994년 일본 시즈오카현 하마마쓰시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관악제에 한국 대표로 보낸 일이 계기였다. 트롬본 전공자로 관악협회제주지부장이던 이상철 위원장은 하마마쓰에 머무는 동안 “이 정도 관악제라면 우리도 노력하면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관악협회제주도지부의 제안에 제주도가 예산 지원을 약속하면서 광복 50주년이던 1995년 8월 제주국제관악제가 탄생했다.

관악제는 몇 차례 변화를 겪었다. 3회부터 격년제가 아니라 연례 축제로 바뀌었다. 1999년부터는 제주시와 공동주최했고 지금은 제주도가 그 역할을 맡고 있다. 2000년엔 제주국제관악콩쿠르가 생겨났고 2009년 유네스코 산하 국제음악콩쿠르세계연맹(WFIMC)에 가입하며 그 위상이 높아졌다. 2012년부터는 밴드·양상블 축제, 국제관악콩쿠르를 통합 운영해오고 있다.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수많은 관악인들이 제주를 거쳐갔다. 그는 특히 대만의 예수한, 트롬본의 아르민 로진, 타악기 주자 박동욱, 호른 연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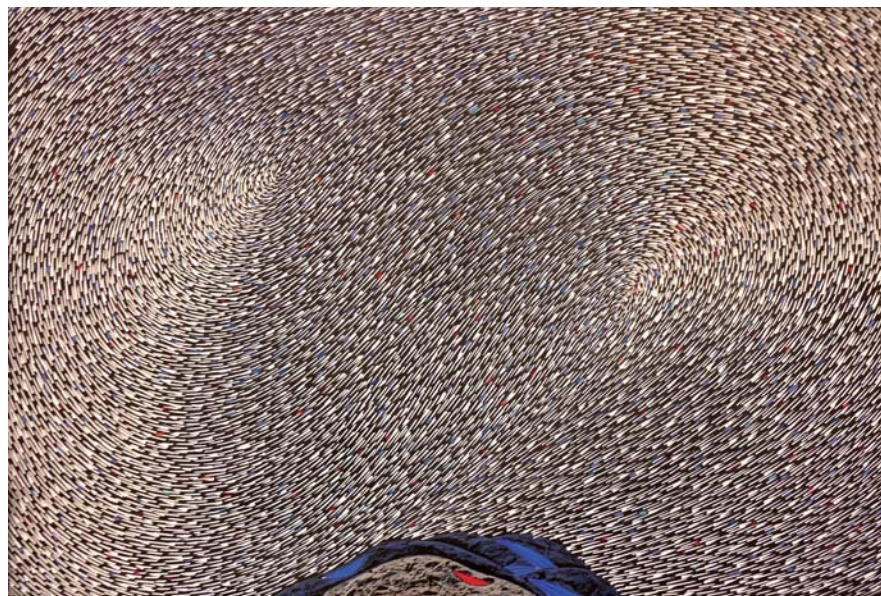
이상철 제주국제관악제 집행위원장은 관악제의 대동부터 성장까지 사반세기 역사를 증거해온 토박이 관악인이다. 전선희기자

자 김영률, 재독 관악인 윤종현 등을 떠올렸다. 그들 말고도 국내외 여러 관악인들과 인연을 쌓아가며 관악제를 끌어온 이 위원장은 “고인 물은 썩는다는 말이 있지만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꾸준히 이어온 점이 이 축제의 장점”이라고 말했다. 그가 이야기하는 ‘정체성’은 대중성과 전문성의 균형이다. 그는 축제와 콩쿠르가 동시에 이루어지고 전문 연주자와 동호인 구분 없이 어울리는 걸 두고 ‘제주형 관악제’라고 불렀다.

이달 8일이면 제24회 제주국제관악제, 제14회 제주국제관악콩쿠르의

팡파르가 울리고 다시 9일 동안 금빛 축제가 펼쳐진다. 관악제 기간 유명 연주자가 머무는 제주는 ‘세계 관악의 수도’가 된다.

내년 관악제 사반세기를 맞는 이 위원장은 “이제는 관을 더 벌려놓기보다 있는 걸 더 세련되게 가꾸고 싶다”고 했다. 관악제가 열리지 않는 겨울 시즌 청소년 세대를 위한 단기 국제관악아카데미 운영, 제주 학교 밴드부의 체계적 육성 등 관악제로 일군 성과를 차세대 제주관악의 밑거름으로 쓰도록 이끄는 일도 그의 바람 중 하나다. 전선희기자



백광익의 ‘오름 위에 부는 바람’ 김만덕기념관(관장 김상훈) 기획 초대로 마련되는 제주 중진 백광익 작가의 개인전이 이달 6일부터 10월 6일까지 두 달 동안 이어진다. 제주도화사단법인 김만덕기념사업회(상임대표 고두심)가 주최하는 이번 전시는 ‘오름 위에 부는 바람’이란 제목을 달았다. 개막 행사는 첫날 오후 5시 김만덕기념관 1층 로비에서 진행된다.

망고 속살 같은 ‘노란 환상통’ 꺼안다

양순진 시인 신작 시집
앞서 새 동시집도 발간

제주 양순진 시인(사진)이 창작집 두 권을 잇따라 펴냈다. 책과나무 출판사에서 나온 시집 ‘노란 환상통’과 동시집 ‘학교가 좋아졌어요’다.



시집 ‘노란 환상통’에는 100편이 넘는 시가 실렸다. 이 세상에 온 이유를 깨기 위해, 나를 잊기 위해, 나를 뜨겁게 사랑하기 위해, 오지 않은 사랑을 먼발치에서 기다리며 썼다는

시들이다. 시인이 즐겨 다루는 망고의 속살처럼 표지까지 노랗게 물들인 시집으로 그의 마음 안에 끝없이 노랗게 피어나는 ‘멜랑콜리’를 꺼안아 부르는 노래들로 채워졌다.

앞서 나온 동시집 ‘학교가 좋아졌어요’는 제주 아이들이 그린 그림과 어울려 독서논술 강사로 활동하며 만난 동시들이 펼쳐진다. ‘하멜의 바다’, ‘녹남봉에 소풍 가자’ 등 고향 이야기도 담겼다.

제주대 국문과를 졸업한 시인은 동시, 동화까지 아우르며 창작을 이어오고 있다. 한국해양아동문화연구소 제주권 회장, 봄사랑독서회 대표이자 제주작가회의, 제주아동문학협회 회원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전선희기자

전시장에 뜬 달… 포용과 치유의 달빛

김애란의 ‘제주 아일랜드’
거친 파도와 달빛의 공존

양민희 첫 개인전 ‘연월’
하얀 달 아래 섬과 바다



양민희의 ‘연월’.

제주도 문예회관 전시실에 두 개의 달이 비추고 있다. 김애란의 일곱 번째 개인전 ‘제주 아일랜드’와 양민희의 첫 개인전 ‘연월(戀月)’에 나란히 달이 떠올랐다.

서양화를 전공한 김애란은 해안가에서 마주한 태풍의 잔상을 떨치지 못해 그 순간을 오래도록 작품에 담아왔다. 이번에는 제주 바다의 거친 파도와 공존하는 달빛, 별빛을 더했다. 어둠을 감추려는 햇빛과 달리 달빛은 어둠을 감싸 안는다. 작가는 달이 품은 그 포용의 메시지에 끌렸다.

“형식은 없다. 마음 가는 대로 가보자”며 작업한 작품들로 ‘웰컴 투 신임’, ‘연복로 블루스’, ‘새벽달’, ‘평화’ 등을 볼 수 있다. 전시는 이달 8일까지 1전시실.

양민희 역시 대학에서 서양화를 공부했다. 그의 이번 작업은 어머니를 잃은 크나큰 슬픔에서 시작했다. 가신 이를 그리며 어머니의 고향 서귀포 풍경에 눈길을 뒀고 고인이 가장 행복했던 시절의 모습이 담긴 빗바랜

흑백사진의 색을 주조색으로 택했다.

달 뜬 하늘아래 섬은 모델링 페이스트를 이용해 쌓이고 올리거나 굵아내고 깎는 부조화화(입체화화)기법으로 표현됐다. 우리네 얹혀사는 사회 같은 바다에 외로이 떠있는 존재인 섬을 형상화하는 이같은 과정은 작가에게 치유의 시간이 되었다. ‘섬의 기억’, ‘폭풍 전야’, ‘연월-범섬’ 등이 나왔다. 이달 8일까지 3전

시실. 전선희기자 sunny@ihalla.com

“영상진흥원 공모사업 불공정”
제주독립영화협회 등 성명

(사)제주국제문화교류협회와 제주독립영화협회는 5일 공동 성명을 내고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의 2019년도 영상문화육성지원사업 공모사업은 비전문성, 불공정성, 불투명성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1단계 1프로젝트 원칙 적용의 비상식적인 집행 ▷영화제를 상영회의 일부 섹션으로 격하시킨 퇴행적 사업 형태를 인정한 비전문성과 무능력 ▷제주프랑스영화제의 기획팀장을 맡았다는 (사)제주독립영화제 이사의 허위 경력 ▷응모단체에 굴욕적인 내용을 포함한 확약서 제출 ▷심사위원 자격 시비 등 5가지 문제점을 거론하며 “영상문화산업진흥원을 관리감독 해야 할 제주도에서는 오히려 영상문화산업진흥원을 두둔하고 동문서답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선희기자

문화가 쏙지

대마도 4·3위령제 취소

제주칠머리당영등굿보존회(회장 김윤수)가 9월 28~29일 문화재청 지원을 받아 일본 대마도에서 진행할 예정이던 71주년 4·3희생자 위령제를 잠정중단하기로 했다.

4·3을 생각하는 일본인들로 구성된 제주4·3한라산화와 칠머리당영등굿보존회는 제주와 대마도를 오가며 위령제를 치러왔다. 지난 4월에는 제주시 건입동 주정공장 터에서 4·3위령제가 열렸다. 이번 위령제 중단은 지난 2일 일본 정부가 전락물자 수출우대 대상인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하면서 결정됐다.

지하사가 시각디자인 전시

(사)제주시각디자인협회(회장 김경현)가 제주중앙지하사장에서 제16회 회원전을 열고 있다.

이달 30일까지 계속되는 전시로 실내를 벗어나 관람객들을 찾아가는 행사로 기획됐다. 제주도민과 관광객들이 여름을 건강하게 나고 행운이 깃들기를 바라며 ‘부적(符籍)’을 주제로 디자인한 작품 40여점을 티셔츠에 담았다. 주최 측은 “우리 몸을 지켜주는 수호부(守護符)를 통해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전시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찾아가는 문화예술 행사를 확대할 것”이라고 했다.

축 수 훈 국 민 포 장  강 봉 기 국민포장 수훈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의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정 의 향 교 전 교 이 문 식 외 유림일동	축 수 훈 국 민 포 장  강 봉 기 한국자유총연맹 창립 제65주년기념 유공조직원으로 선정되어 국민포장 수훈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의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한국자유총연맹 서귀포시지회 표선면분회 회 장 김 승 희 외 회원일동	축 수 훈 국 민 포 장  강 봉 기 (성읍초등학교 24회) 국민포장 수훈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의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성읍초등학교 24회 동창일동	축 수 훈 국 민 포 장  강 봉 기 국민포장 수훈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의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서귀포경찰서 표선파출소 생활안전협의회 회 장 홍 지 혁 외 회원일동
--	---	---	---